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41호

발행인 : 김정태

발행일 : 2017년 2월 20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정의가 승리한다! 유시영 법정구속!

우리가 이겼다!

17일(금) 유성기업 유시영 대표이사가 법정구속됐다. 그동안 노조파괴로 유성지회 조합원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한광호 열사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죄값을 받은 것이다. 유시영 대표이사는 징역 1년 6월 법정구속에 벌금 200만원, 이기봉 아산공장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 최성옥 영동공장장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1년 노조파괴가 시작된 후로 6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 뒤라 안타까움이 크지만 지금이라도 노조파괴 범죄자를 단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유시영 대표이사 죄질이 매우 나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내용을 언급했다. 유성기업의 노조파괴에 현대자동차가 개입해 공모했다는 점, 유성기업이 창조컨설팅의 문건대로 징계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점, 어용노조 설립에 개입한 점 등을 인정했다. 그동안 유성기업이 발뺌했던 거의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법원은 유성기업이 범행을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진행했고 기간도 길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을 지켜본 많은 조합원들은 기쁨을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다. 김성민 유성영동지회장은 “판사가 판결문을 읽을 때 동지들 얼굴을 봤다. 우리의 삶을 파탄내고 동료까지 뺏어간 노조파괴 6년의 고통을 판사는 30분간 빠르게 담담히 읽었다. 기쁜 마음도 있었지만 범죄사실을 읽을 때마다 저렇게까지 우리를 죽이려고 했었나 싶었

다. 오늘 승리는 우리가 땅바닥 기고, 임금 뺏기고, 가정도 무너져가면서 만들어낸 피같은 승리다. 앞으로 열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투쟁하겠다.”며 소회를 밝혔다.

열사의 형인 국석호 동지는 “6년이나 걸렸다. 이 곳에 함께 하지 못하는 광호 생각하며 투쟁하자. 오늘은 웃으며 즐기고 다음 투쟁 또 준비하자.”며 결의를 다졌다.

열사 앞에 사죄하고 노조파괴 중단하라!

이제 유성기업은 더 이상 발뺌할 수 없게 됐다. 그동안 벌여온 노조파괴가 얼마나 악질적인 범죄였는지 법원에 의해 모두 확인됐다. 이제 해야 할 일은 열사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현장에서 진행 중인 노조파괴 행각을 모두 즉각 중단해야 한다. 유성지회 조합원들이 겪어야 했던 모든 고통에 대해 사과하고 노조파괴 이전의 상태로 모든 것을 되돌려 놓아야 한다. 유성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이것 뿐이다.

아직 우리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대표이사가 구속됐지만 유성기업이 지금까지 6년을 벌여온 노조파괴를 쉽게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번 판결을 통해 현대차가 개입한 점까지 확인된 만큼, 현대차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도 이뤄져야 한다.

아직도 우리가 갈 길은 많이 남았지만, 지금까지 하나하나 승리해온 것처럼 이겨나가자. 앞으로도 한광호 열사 앞에 부끄럽지 않을 투쟁으로 승리해나가자. 노조파괴 끝장낼 때까지 한걸음 한걸음 이겨나갈.

노조파괴 범죄자 구속됐다! 열사 앞에 사죄하라!